

길 線에서 빛으로

The Road Light Beneath the Line

최병기 개인전
Choi Byung Ki Solo Exhibition

Oct. 02 - Feb. 14

주최: 리마 LIMAA
장소: 그랜드 조선 제주 Grand Josun Jeju

작가 소개

최병기(Choi Byung Ki, 1950–1994)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대학원에서 수학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전시와 상파울루 비엔날레(1987) 등에 참여하며 당대 한국 미술계에서 자신만의 회화세계를 구축해간 그는 선과 면, 색이라는 회화의 근원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Choi Byung Ki(1950–1994) graduated with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painting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ubsequently pursued advanced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New York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Participating in significant exhibition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including the São Paulo Biennial (1987)—he cultivated a distinctive pictorial identity within the Korean art establishment of his era, perpetually refining his idiosyncratic formative language through sustained inquiry into line, plane, and colour.

전시 소개

30년. 여러분에게 3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1994년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 예술가의 열다섯 살 아들에게 30년은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고, 어느덧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던 나이를 지나 이제는 그가 걸었던 길을 한 인간의 삶으로, 한 예술가의 삶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기억을 더듬고 그 바람을 따라, 최병기의 작품은 오랜 시간을 건너 다시 우리 앞에 놓입니다.

최병기(1950–1994)는 선과 면, 색이라는 회화의 근원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그는 당대 한국 미술계에서 자신만의 회화세계를 치열하게 구축했습니다.

그의 작업을 바라보면 무엇보다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완성으로부터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며 생각해야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대개의 회화가 색을 쌓아가며 화면을 완성한다면, 최병기의 작업은 그 반대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작가는 아크릴의 배면에 여러 겹의 색을 입히고 다시 긁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선을 따라 색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색과 빛이 드러납니다. 가까이에서 마주할수록 작품의 치밀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수없이 반복되고 중첩된 선과 그 사이 빛처럼 남겨진 여백을 따라가다 보면 한 점의 작품에 담긴 오랜 생각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최병기에게 선은 단순히 형태를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표현의지를 드러내는 가장 근원적인 언어였습니다. 선은 반복되고 중첩되며 면과 공간이 되고, 다시 색과 만나 하나의 화면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선과 면, 색은 1990년대에 이르러 <나무>, <은행나무>, <물가>와 같은 자연과 기억의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추상과 구상은 그에게 서로 다른 두 세계라기보다 자신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눈앞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오가던 하나의 길에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제주의 따스한 빛이 머무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작가 최병기가 걸어온 길의 흔적을 다시 마주합니다. 이번 전시가 한 사람이 치열하게 걸어온 길을 잠시 되짚어보는 사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훗날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Thirty Years. What does a span of thirty years signify?

For the fifteen-year-old son of an artist who died in 1994, three decades felt inconceivable. Having matured into adulthood and established his own family, the son has since surpassed the age at which his father's life ended—coming to view his father's existence not merely as a parent's, but as an artist's. Guided by these memories, Choi Byung Ki's works are once again exhibited, following decades of relative obscurity.

Choi Byung Ki(1950–1994) devoted himself to exploring line, plane, and colour, the fundamental constituents of painting. Despite his brief lifespan, he forged a distinctive pictorial idiom within Korea's art establishment of his era.

Whereas conventional painting achieves resolution through the accumulation of pigment, Choi's approach proceeded in the opposite direction. He applied successive layers of colour to the reverse of the acrylic surface, then systematically scraped them away. Tracing these lines and the luminous spaces between them, one intuitively perceives the extensive contemplation invested in each pi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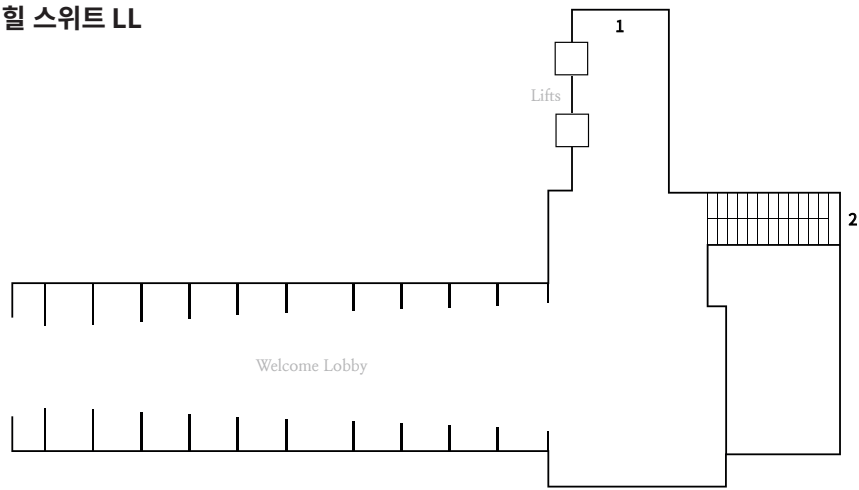
For Choi, line was not merely an instrument for depicting form, but the essential language through which his existence and creative volition were articulated. His preoccupation with line, plane, and colour during the 1980s was superseded, by the 1990s, by landscapes evocative of nature and memory—*Tree*, *Ginkgo*, *Waterside*.

In this space, suffused with Jeju's gentle light, we once again encounter the traces of Choi Byung Ki's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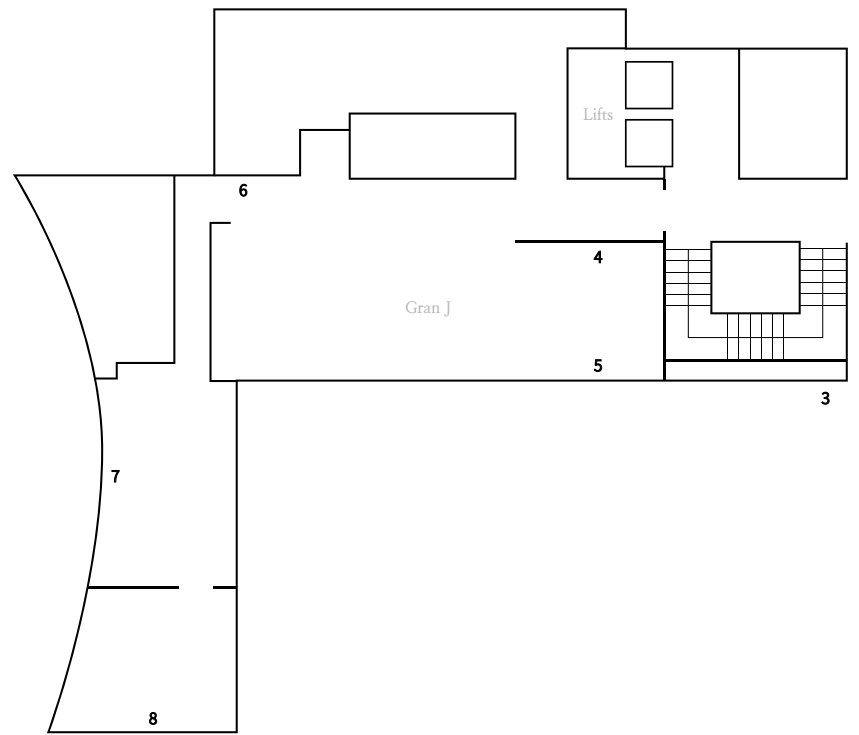
What form will the path we are now walking ultimately assume, in the fullness of time.

전시 맵

힐 스위트 LL



힐 스위트 LF



작품 리스트

Hill Suite, LL <i>Welcome Lobby</i>	길 Road 1986,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96.9×74.8cm	1
	線·面·色 8705 Line, Plane, Color 8705 1987,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45×97.5cm	2
	線으로부터-마 From Lines-E 1984,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85.2×83.3cm	3
Hill Suite, LF Gran J	나무 Tree 1993,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97×130.3cm	4
	은행나무 Ginkgo 1994,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16.5×80cm	5
	물가 Waterside 1993,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00×80.3cm	6
	線으로부터-C From Lines-C 1984,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45×85cm	7
	線·面·色 '86-나 Line, Plane, Color '86-B 1986,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25.5×85cm	
	線으로부터-D From Lines-D 1987,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45×85cm	8
	線·面·色 '85-마 Line, Plane, Color '85-E 1985, Acrylic, Mixed Media, 130.3×85cm	

작품 리스트

Hill Suite, LL
Welcome Lobby

길 Road
1986,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96.9×7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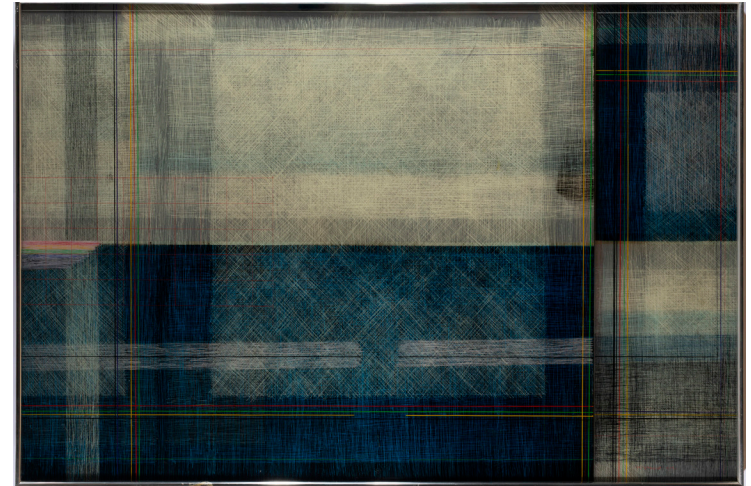
1



Hill Suite, LL
Welcome Lobby

線·面·色 8705 Line, Plane, Color 8705
1987,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45×97.5cm

2



작품 리스트

Hill Suite, LL
Welcome Lobby

線으로부터-마 From Lines-E
1984,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85.2×8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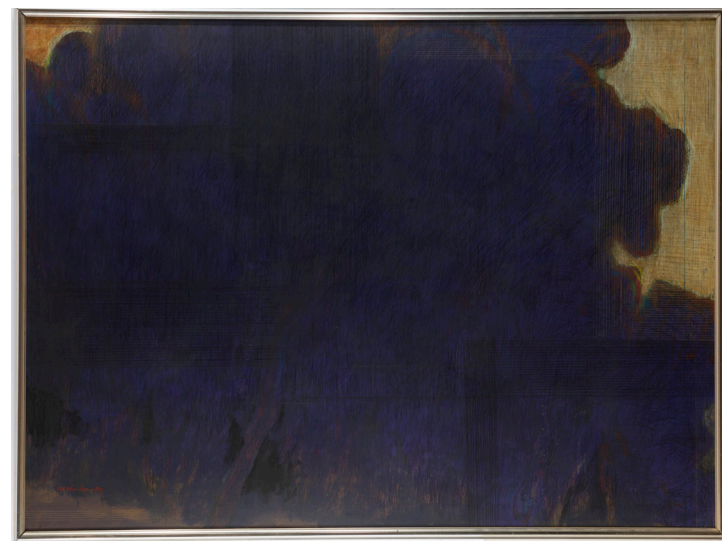
3



Hill Suite, LL
Welcome Lobby

나무 Tree
1993,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97×130.3cm

4



작품 리스트

Hill Suite, LL
Welcome Lobby

은행나무 Ginkgo
1994,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16.5×80cm

5



Hill Suite, LL
Welcome Lobby

물가 Waterside
1993,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00×80.3cm

6



작품 리스트

Hill Suite, LL
Welcome Lobby

線으로부터-C From Lines-C
1984,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45×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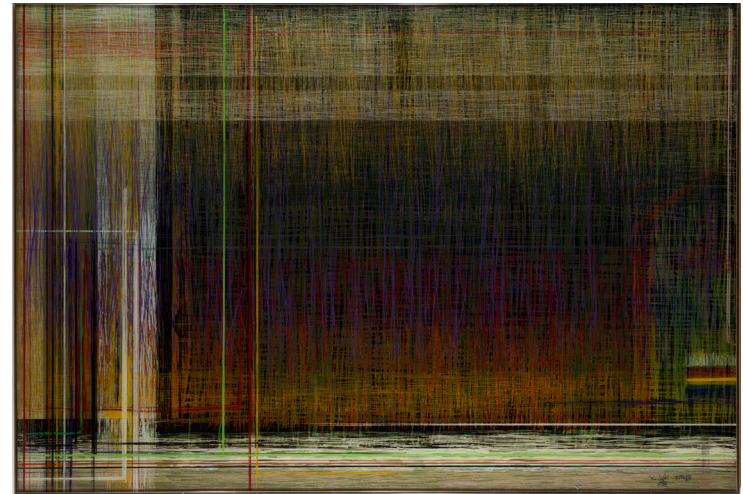
7



Hill Suite, LL
Welcome Lobby

線·面·色 '86-나 Line, Plane, Color '86-B
1986,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25.5×85cm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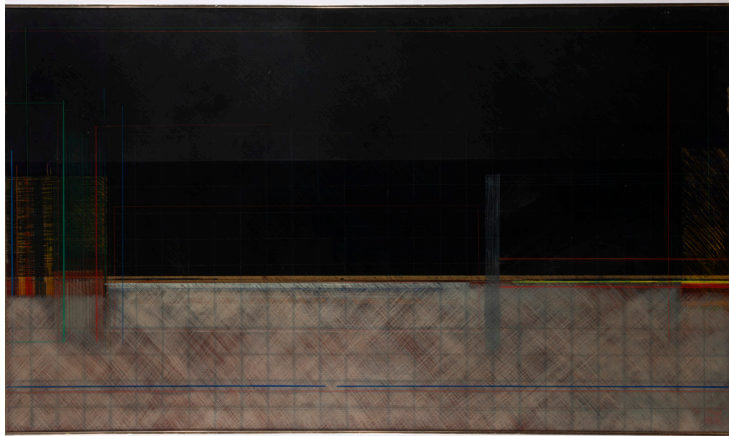


작품 리스트

Hill Suite, LL
Welcome Lobby

線으로부터-D From Lines-D
1987, Acrylic on transparent acrylic board, 145×85cm

7



Hill Suite, LL
Welcome Lobby

線·面·色 '85-마 Line, Plane, Color '85-E
1985, Acrylic, Mixed Media, 130.3×85cm

8



주최 리마

《길:線에서 빛으로》전시는 동시대 미술을 탐구하는 전시기획 플랫폼 ‘리마(LIMAA)’의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리마는 현대미술 전시와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을 매개로 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선보이며 예술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한 예술가의 치열한 탐구가 오늘의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관람 시간

힐 스위트 LL 웰컴 로비 24hrs

힐 스위트 LF 그랑 제이 오전 11시-오후 9시

대상자

그랜드 조선 제주 투숙객

그랜드 조선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72번길 60

그랜드 조선 힐 스위트

Organized by

LIMAA

《The Road : Light Beneath the Line》is presented by LIMAA, a curatorial platform dedicated to exploring contemporary art. LIMAA's mission is to promote mutual growth through art by organizing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and diverse artistic projects. Through this exhibition, LIMAA aims to expand the reach of art and provide viewers with an immersive experience that encourages self-discovery and inspiration.

Opening Hours

Hill Suite LL Welcome Lobby 24hrs

Hill Suite LF Gran J 11:00 - 21:00

Exhibition Attendees

Exhibition Attendees

Grand Josun Jeju

60, Jungmungwangwang-ro 72beon-gil,
Seogwipo-si, Jeju-do, Grand Josun Hill Suite